

비구니 교육의 어제와 오늘...내일



비구니 승가대학의 역사와 문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한국처럼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과 수행 체계가 반듯하게 전하는 나라도 없다. 한국의 비구니 수행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의 전통을 이어 시대에 맞는 형태로 정착해 왔다. 그 중심에 비구니 승가대학(강원)이 있다. 현행법상 비구니계를 받기 이전 단계인 사미니 시절에 승가대학 과정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비구니 승가대학이라고 보다는 사미니 승가대학 혹은 사미니 강원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현재 조계종 인가 사미니 승가대학은 동학사 운문사 봉녕사 청암사 등 전통 사찰에 개설한 4개와 불교의 현대화 과정에 발맞춰 설립된 삼선승가대학과 유마사 승가대학이 있다. 이 가운데 삼선승가대학은 대중생활을 하지 않고 통학을 하는 승가대학이란 점이 특이하다.

일제강점기와 불교정화 등 격동기를 거친 이후 처음 비구니 강원의 격을 세운 곳은 동학사 강원이다. 만학 스님에서 경허스님을 거쳐 운허스님에 이르기까지 강원의 전통이 고스란히 살아 있던 동학사에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과 수행을 위한 강원이 설립된 것은 1956년. 제1대 강주 경봉용국 스님에 의해서다.

이후 속속 문을 연 다른 강원들도 사찰의 역사와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지 않고 변화 풍토 조성 과 수행가공 확립에 간담없는 노력을 기울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대한 고찰과 연구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구니 승가대학의 역사와 문화>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설립한 불교사 연구위원회가 2008년 개최한 '한국 현대불교의 교육기관'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묶은 것이다. 비구니 승가대학의 설립배경은 물론 현대 한국불교에 대한 기여와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 등이 현장 강사들의 안목으로 짚어졌다.

임연태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으로 오세요

www.hyunbul.com

책세상 buddhanews.com

‘지금 여기’서 깨어 있는 삶은 행복하다

현진 스님 5년만의 에세이 ‘오늘이 전부다’... 행복의 길 안내



“스님, 출가해서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장가 안 가서 행복합니다.” 요즘 들어서 거듭 거듭 장가 안 가길 잘했다며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스님. 베스트셀러 <삭발하는 날>의 저자 현진 스님(정주 관음사 주지)이 5년 만에 신작 에세이 <오늘이 전부다>를 펴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깨어있는 삶을 위한 잔잔한 이야기’를 테마로 한 이 책은 스님의 다섯 번 째 저서. 현진 스님은 지금까지 짙 집안의 일상이나 수행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수채화를 보는듯한 감성과 아름다움으로 묘사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삶의 문제와 관련된 현실적인 주제, 특히 ‘행복’에 초점을 맞췄다. 스님은 행복의 길(道)을 달리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전부’ ‘현재’ ‘지금’이란 단어를 무수히 반복하며 나의 ‘행복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제 선사의 ‘비로’도 지금 이 순간까지, 달리 다른 시절이 없다(卽是現今 更無時節)는 가르침이 수행자에게나 생활인들에게 절실함을 강조한다. ‘숨 쉬어라, 사랑하라, 수행하라, 수고(受苦)하라, 떠나라!’ 라는 주제 아래 담겨진 작은 이야기 내지 법문들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명쾌하게 꿰뚫어보도록 ‘오늘이 전부다’라는 말로 귀결시키고 있다. 4월 13일 기자간담회를 연 현진 스님은 “6년여 간 주지소임을 맡아 신도님들이 호소하는 고민을 함께 풀러 애쓰다보니,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안다면 어려운 문제의 절반은 저절로 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아름과 이별은 피해야 할 대

상이 아니라 내 삶속에서 수용해야 할 인연 같은 것’이라며 “지금 당장 마주한 자리에서 서로 이끼며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송광사 율원에서 정진하고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을 졸업한 현진 스님은 월간 <해인> 편집위원과 해인사 포교국장 소임을 맡아 수백편을 진행하기도 했다. 2001년 스님들의 일상을 소개해 ‘삭발하는 날’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으며, 이후 <잡있는 스님 이야기> <산문, 치인리 심심지> <두번째 출가> 등을 펴냈다. 스님은 인연이 주어지면 성지순례기를 따로 쓸 계획이다.

클리어마인드 | 1만3000원
김성우 기자 buddhisp5@hanmail.net

너무나 인간적인 부처님 최후의 모습 하늘아래 첫 동네 히말라야도 ‘현대’



유행경 해남 역해 | 부다가야 펴냄 | 1만5000원

<장야행경> 속에 전하는 <유행경(遊經)>은 있다. 부처님이 입멸하기 전 서너 달의 모습이 생생히 기록된 경전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항상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라”는 가르침을 “피곤하다. 높고 싶다” “물을 마시고 싶다” 등의 매우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과 함께 담고 있다. 열반을 향한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길, 춘다의 공양을 받으시고 병을 얻은 뒤에도 그치지 않았던 그 가르침의 여행, 쿠시나가라에서의 마지막 설법 그리고 장엄한 열반과 사리의 분해까지 실로 활하의 흐름 같이 전개된 부처님의 최후 모습이 가장 잘 묘사된 것이 <유행경>이다. 대개의 불자들이 알고 있듯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을 담은 경전은 <열반경>이다. 그러나 <유행경>은 <열반경>이 선행지기까지의 과정, 부처님 최후의 가르침이 어떤 상황에서 설해졌는지를 엿볼 수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 전경사인 해남 스님은 일반 유학 시절 <유행경>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한다. 노수행자의 마지막 모습에서 느껴지는 인간미에 대한 강한 인상이 이 경전을 쉽게 번역해 책으로 엮는 발심의 계기였던 것이다.

임연태 기자



라닥 하늘길을 걷다
전제우 글 사진 | 지오마케팅 펴냄 | 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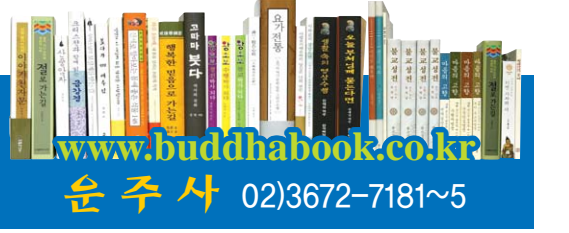
절 풍경 속에서 불교의 진수를 읽어내는 사진작가 전제우씨가 승보종합 송광사의 정전 스님과 하늘아래 첫 동네 라닥을 순례했다. 티베트 불교의 숨결 아니, 그 이전 자연과 사람의 호흡을 조심스럽게 밝으며, 그는 두드러진 현상을 화두로 서터를 늘려냈다. 그의 렌즈에 잡힌 모든 풍경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티베트 불교의 전통이기도 하고 티베트 사람들의 질박하고 지순한 삶이기도 하고 히말라야의 신령스러운 기운이기도 하다. 그러한 내용이 풍경을 통해 드러나는 동안 사람들에게는 큰 자극이 된다. <라닥 하늘 길을 걷다>는 라닥 지역의 풍경을 통해 인간을 삶과 미래를 보여준다. 마냥 신비하고 원시적일 것만 같았던 선입관은 버려야 한다. 히말라야도 현대다. 현대의 히말라야 티베트 라닥 그리고 사람들이 책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을 속속들이 보여준다. 사진은 평면이지만 작가의 이야기는 매우 입체적이어서 대중무진의 인드라망 속 인간의 고뇌와 열락이 다 하나의 도리인을 웅변한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Rank), 도서명 (Book Title), 저자 (Author), 출판사 (Publisher). Lists 10 Buddhist books including '인과경', '안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산을 사랑한다', '광명진언기도법', etc.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Large advertisement for 'Sachal Dosonwan' (Sachal Doseonwan) featuring a list of 20 books, a price of 20% off, and event information. Includes a large image of a book cover and a list of titles like '사찰 도서관 지원을 위한 제2회 불교도서전'.